

- 본문 : 창세기 16장 1~6절
- 제목 : “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”

설교자 : 조경래 담임목사

· 본문 읽기

-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
-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
-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
-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
-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
-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

· 마음의 문을 열며

무엇인가를 ‘기다림’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 기다림 속에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. 약속된 날을 기다리며 사람은 의심을 하기도 하고, 지겨워하기도 하면서 많은 스트레스와 조바심을 갖게 되면서 마음 한 구석에서 피어오르는 것은 ‘내가 원하는 방식’으로 해보려는 인간적 의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. 그리고 많은 경우에 기다리지 못하여 일을 그르치는 일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순간도 뒤 따르게 됩니다.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약속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, 또 우리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. 오늘 말씀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영성을 세우시기 바랍니다.

1. 우리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기다림에 지쳐 혹시 하나님의 때를 앞서서 행하였거나 하나님의 때를 지나쳤던 때가 있습니다. 혹시 나의 삶에 이 일로 인해서 곤경이나 난처한 상황에 처했던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.

· 말씀의 씨를 뿌리며

2. 오늘 본문에서 아브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? 그리고 아브람의 방법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? (창16:1~2, 롬8:5~8)
3. 인간적인 방법을 행함으로 사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그리고 남편이었던 아브람과의 관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? (창16:4~5)
4.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인간에게 주신 약속의 때를 위해 우리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때를 계시하십니다.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때를 생각하며 ‘내 앞의 기다림’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?

· 삶의 열매를 거두며

5. “하나님의 약속”을 누리기 위해 오늘 내가 결단해야 할 “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방법”을 결단해 봅시다. 이를 통해 “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”를 삶으로 살아내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.